

석유제품 수출 6개월만에 “반토막”

전체 수출의 12%에서 6%로 ... 국제유가 하락에 수요부진이 최대원인

석유제품 수출이 국제유가 하락 및 수요 감소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다.

3월18일 관세청에 따르면, 2009년 2월 전체 수출(254억달러)에서 석유제품(15억달러)이 차지하는 비중은 5.7%로 집계됐다.

2008년 7월 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이 11.9%(49억 달러)까지 치솟았으나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.

경유, 나프타(Naphtha), 벙커C유 등의 석유제품은 최근 몇 년간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수출증가를 주도해 왔다.

석유제품 수출은 2004년 102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%에 그쳤으나 매년 늘어나 2006년 204억달러로 6.3%를 차지한데 이어 2007년에는 240억달러, 6.6%로 확대됐다.

2008년에는 1월 6.8%(22억달러), 3월 7.9%(29억달러), 5월 9.7%(38억달러)로 상승하다가 국제유가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한 7월에는 11.9%(49억달러)로 정점을 찍은 후 9월 10.5%(39억달러), 11월 7.4%(22억달러), 12월 5.9%(16억달러), 2009년 1월 6.6%(14억 달러)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관세청 관계자는 “국제유가가 하락한데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석유제품의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평균 원유 수입단가는 2월 배럴당 43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% 가량 하락했고 수입액은 62억8천000만달러에서 32억3000만달러로 49% 줄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18>